

복음의 요약, 묵주기도

- 묵주기도 성월 -

안아름 소화테레사 (igodjghk@nate.com)

학습목표

1. 묵주기도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복음의 요약임을 안다.
2. 묵주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알고,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적극적으로 기도생활을 한다.

▶ 준비물 : 작업지, 그림카드, 풀

▶ 시작기도 : 사도신경

바라보기

(20) 분

조별 작업을 통해 묵주기도가 담고 있는 신비들을 그림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평소 묵주기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나 묵주기도를 드릴 때 나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을 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나 평소 자신이 묵주기도를 드리며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알아보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20단 묵주 완성하기(조별 작업)

작업

조별 작업지에 그림으로 표현된 각 신비(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여 20단 묵주를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조별로 15장의 그림만 주어지고 나머지 그림은 퀴즈를 맞혔을 경우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장의 신비 카드를 전부 획득하여 먼저 20단 묵주를 완성한 조가 승리합니다.

알아보기

(20) 분

(1) 묵주기도는 천사가 마리아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리는 때부터 복된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구원사건들이 담겨 있는 복음의 요약과도 같은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2)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로서, 이는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커다란 은총의 선물임을 알게 합니다.

살아가기

(10) 분

예수님 일생의 신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셨던 성모님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묵주기도 성월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끎니다.

ACT

1. 하루에 10분씩 신비와 관련된 복음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2. 10월 중 한 번 이상 신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바라보기 (20분)

작업

20단 묵주 완성하기

- ① 각 조별로 20단 묵주 모양이 그려진 1장의 작업지와 15장의 그림카드를 나누어 갖는다.
- ② 각 조는 가지고 있는 그림카드만으로 순서를 맞추어 작업지를 채운다.
- ③ 작업지의 비어있는 칸을 메우기 위하여 필요한 5장의 그림카드는 퀴즈를 풀어 획득한다.
- ④ 교사가 낸 퀴즈의 정답을 맞힌 조는 빈칸을 채우는데 필요한 카드를 1장 가져간다.
- ⑤ 20단 묵주 그림을 완성하는 조가 나올 때까지 퀴즈를 계속 푼다.
- ⑥ 작업지를 완성한 조가 나오면 퀴즈를 끝내고, 모든 조에게 나머지 그림카드를 나누어준다.
- ⑦ 나머지 조도 20단 묵주를 완성한다.
- ⑧ 작업이 끝나면 조원들과 바라보기 질문 1, 2에 대해 나눔 한다.

[작업Tip]

- 1) 그림카드는 묵주기도의 각 신비(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2)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묵주기도의 신비를 그림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 3) 작업에 사용할 퀴즈는 묵주기도의 신비와 관련된 내용(인물, 장소 등)으로 미리 준비합니다.
- 4) 교리 반의 인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조별 작업이 아닌 개인 작업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1. 20단 묵주를 완성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2. 나는 평소 묵주기도를 드릴 때 신비를 어떻게 묵상하며 기도하나요?

우리는 묵주반지나 묵주 팔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가톨릭 신자일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그만큼 가톨릭 신자들에게 중요하고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기도문들과 달리 순서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묵주기도를 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날 어떤 신비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비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묵주기도는 점점 어려운 기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묵주기도의 신비는 어려운 것, 머리로 암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리며 묵주기도의 신비 안에는 성모님과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기도문을 외우는 기도도, 자신의 지향만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정작 그 방법은 모르고 있었거나, 형식적으로 묵주 알을 굴리며 나의 일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혀 그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의미를 무심히 지나쳐 버리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묵주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 기도일까요?

알아보기 (20분)

1. 목주기도는 무엇이며, 왜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릴까요?
2. 목주기도의 각 신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올바른 목주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3. 목주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가요?

목주기도는 성모송 열 번과 주님의 기도, 영광송 각 한 번을 한 단으로 하여 실에 꿰 목주 알을 만지면서 기도문을 암송하는 전례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목주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생애와 죽음, 영광과 관련된 20가지의 성경적 신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목주기도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포함해 왔는데 2002년 10월 1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기존의 신비와 더불어 새로이 빛의 신비를 목주기도에 추가시킬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공생활에 관한 신비인 빛의 신비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주기도는 '요약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목주기도의 각 신비와 그 기본형태가 복음에서 비롯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주기도 안에서 성모송을 반복적으로 바침으로써, 목주기도는 주님의 탄생 예고의 결정적 순간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의 강생'이라는 복음의 근본 신비를 밝혀줍니다. 또한 목주기도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의 자비로우신 결정에 따라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시어 구속 사업을 이루신 과정이 순서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정녀의 잉태와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의 신비들로부터 파스카 신비의 절정 곧 복된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구원사건들이 조화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강림일에 창립된 교회와 영혼과 육신이 하늘나라로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에게서 나타난 신비도 담겨 있습니다.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의 잉태부터 유년시절의 사건들을 묵상하도록 안내해주는 신비이며, '빛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세례와 수난 사이에 공생활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도록 안내해주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활을 통해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 새로운 신비를 빛의 신비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도록 안내해주는 신비로서 주로 사순시기에 묵상하게 되며,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모님의 승천을 묵상하도록 안내해 주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주기도는 바로 이러한 신비들을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문 그 자체나 자신의 지향, 혹은 목주 알의 개수가 아닌 그 날에 바치는 신비의 한 단 마다에 담긴 내용에 집중하면서, 그 신비와 관련된 복음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꽃가르침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루카 1, 42)

목주기도는 분명히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목주기도의 특징적인 요소인 성모송의 반복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인사와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라는 엘리사벳의 인사는 궁극

적으로 그분께 드리는 인사이기 때문에 성모송을 되풀이하여 바치는 것은 구원의 신비를 계속 묵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잘 바치는 사람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 신비에 깊이 동참하며 그 신비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이며, 전부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가고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내용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를 가리키며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하고 말씀하심으로 교회 모든 자녀를 당신 어머니의 보호에 맡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전구로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요한 2,1-12)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올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기도인 묵주기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은총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 (10분)

묵주기도를 바치며 각 신비마다 열 번씩 반복되는 성모송은 무미건조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해.” 라는 한 마디 말에 그 순간마다 다른 느낌과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것처럼 성모송을 바치며 그리스도 강생구속의 신비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묵주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우리는 묵주기도 성월을 지내며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우리 삶 안에서 끊임없이 그 신비를 떠올리며, 하느님께 전구해주시는 성모님을 기억하는 한 달을 보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물론 10월 한 달 뿐만이 아니라 연중 모든 시기 동안 이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나, 특별히 묵주기도 성월 동안이라도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ACT

- ① 하루에 10분씩 신비와 관련된 복음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 ② 10월 중 한 번 이상 신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가족과 함께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 마침기도 : 영광송